

고호세키(벤케이의 공깃돌)

이끼로 뒤덮인 이 두 바위에는 두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전설은 부동명왕과 비사문천의 화신인 오토텐과 와카텐에 관한 것으로서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(910~1007)가 966년에 처음으로 쇼샤잔 산에 도착했을 때, 오토텐과 와카텐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두 돌 위에 내려섰습니다. 오토텐과 와카텐은 쇼쿠 대사의 초기 수행을 도왔습니다. 오토텐과 와카텐은 호법선신, 또는 난폭한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으며, 두 돌은 이 전설에서 ‘고호세키(護法石)’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. 오토텐과 와카텐은 엔교지 절의 수호신으로서 천 년 넘게 절의 전설과 전통에 등장해왔습니다.

두 번째 전설은 12세기 후반의 전설적인 승병인 무사시보 벤케이에 관한 것으로서 ‘벤케이의 공깃돌’로 알려져 있습니다. 벤케이에 관해서는 많은 전설과 일화가 남아 있는데, 벤케이가 소년 시절에 엔교지 절에서 수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서 이 역사적 사실이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. 전설에 따르면 벤케이는 젊은 시절에 두 바위를 공깃돌 삼아 자신의 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.